

# 濟州 說話 一考察

許 椿\*

## 目 次

- I. 緒言-論議의 觀點
- II. 장수설화
- III. 전달설화
- IV. 說話 속의 女性
- V. 結言-說話의 傳播性

## I. 緒言-論議의 觀點

척박한 토지와 험한 기후 속의 三災의 孤島요, 안팎으로 당한 수탈과 피침의 역사로 점철된 제주에는, 전해 오는 설화, 무가, 민요 등이 의외로 풍성하다. 설화에 한해 보아도, 자료의 수집과 함께 그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sup>1)</sup>

그런데 특정 지역 설화의 특성을 추출하려는 이러한 작업에서 자칫 그 우월

\* 국어국문학과 교수

1)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 「濟州島傳說」(以下「傳說」), 瑞文堂, 197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 「韓國口碑文學大系」(以下「大系」) 9-1. 9-2. 9-3(濟州道篇), 1980~198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編, 「濟州說話集成(1)」(以下「集成」), 1985.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以下「설화」), 弘盛社, 1981. 等.

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즉, 의도가 앞선 나머지 객관성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설화의 공통성에 기초한 위에 그 특성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의 설화를 볼 때 우리는 흔히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 판단과 아울러 그 상황이나 결말에 동조하고 미화시키기 쉬운데, 이런 점을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향토 우위에 선 자기 고장 중심의 이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말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면서 본고에서는 제주의 설화 중 장수설화, 풍수설화, 건달설화를 중심으로 설화의 변이 양상, 제주인의 관습, 사고방식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설화에 나타난 여성을 검토하겠다. 생활에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망은 설화에도 잘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뛰어난 인물이나 풍수에 관한 설화가 많은 것도 한 예라 하겠다. 그리고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여러 면모를 훑어보는 것은, 생활 양식이 본토와 상당 부분 다르고 '女多'의 섬인 제주라서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

## II. 장수설화<sup>2)</sup>

먼저 전국적 광포전설인 아기장수 전설을 보겠다. 부모나 관군에 의해 피살되어 땅에 묻힌 아기장수가 어머니의 발설로 재기 직전에 실패하는 이 전설은, 대체로 '출생-초인성 탄로-피살(과 재생 실패)-용마 출현'의 전개를 하고 있다.

비교적 정석적 전개를 보이는 제주의 아기장수 전설 가운데 (1) 배락구룡 (2) 吳察訪 (3) 洪業善 (4) 坪待 부대각 (5) 날개 돌친 密陽 朴氏 (6) 한연 한배임재(이상 「傳說」) (7) 개미목 명당자리 (8) 백정시 (9) 장사 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이상 「集成」) (10) 江汀 김씨 자손 (「설화」) (11) 장사 양태수

2) 장사만을 지칭할 때는 구분하였으나, 장수는 장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 제주의 장수설화는 현길언, *ibid.*에서 검토된 바 있어 논의의 실마리로 삼는다.

(12) 날개 돋힌 아이(이상 「大系」, '濟州道篇'은 따로 卷數를 밝히지 않음. 이하 같음)를 주자료로 삼아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1)에서 부모가 자식의 날개를 자르는 것은, 만일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이 났다 하여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므로 집안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다. 가문 보존 의식이 선행한 것인데, 이 점은 여느 설화에서나 공통된 것이다. 결말에서 벼락이 떨어져 벌을 받는 것은, 본토 전설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 아이를 거부한 부모까지 일반 민중들은 거부한 것으로 사회의 고정관념에 따라 장수아기를 거부한 현실적인 부모와 장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제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지적은 수궁이 가는 점이다. 나아가 왕정 통치하에서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내면적 저항으로까지 해석한다. (「설화」, p.133) 부모를 관권과 대응시켜 보면 타당성있게 받아들여진다. (7)에서 보듯 아기장수의 출생과 실패는 거의 風水, 地氣, 斷穴과 관련이 깊은데, (10)에서는 묘자리를 장궁기가 있다는 이유로 破穴하는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

(4), (5), (6) 등을 통해서 날개 제거에 따른 부모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을 본토의 전설과 중요한 차이로 파악하기도 한다. 본토 전설의 경우 전설적 경이를 통해 비극적인 감정을 보상하고 지명 전설로 영원히 땅 위에 남기려고 하는 데 반해, 제주의 경우는 대부분 인물 전설로서 실제 인물의 묘나 사람들의 구전에서 이루어지는 관심이 증거물로 남는다. (Ibid., pp.137~138) (2), (3), (4), (5), (6), (11) 등처럼 날개가 제거된 후에도 힘은 여전하여 장사로서 살아간다. 이로 보면 날개 자체가 힘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날개는 다른 세계로 비상한다는 상징성에 더 역점이 있다. 장수가 장사로 되었으면서도 현실에 적응하며 장사의 뜻을 펴 살아가는 그 삶의 진지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바로 제주 사람들의 삶의 한 양식으로 풀이하고도 있다. (Ibid., p.140) '힘을 잃은 아기장수', '화적이 되고 만 아기장수' 유형은 힘이 센 이파총(「大系」, 6-11(卷數 표시. 이하 같음)), 하마비를 움직인 아기장수와 조부(7-17), 영남대적 이칠손이(8-7), 화적이 된 아이(8-9) 등의 예를 통해 볼 때, 제주만의 특색이라곤 무리일 것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어

개를 지저 우둔해진 장사<sup>3)</sup>에서 보면, 어깨를 지지라고 스스로 알려준 아기는 보통 사람보다는 힘이 뛰어났지만 힘이 모자라 관군에 뽑히지 못한다. 또 겨드랑이의 날개를 부모가 잘라 크게 되지 못하고 醫院 노릇으로 보낸 최동지(「大系」 1-7, 의원 최동지의 처방), 효심으로 날개를 떼어버린 후 굶어 죽은 장수(3-3, 효심으로 날개를 떼어버린 장수) 등 상당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설화」의 논의를 보자. 이 유형의 제주 지역 전설은 비극적 결말이 상당히 극복되었으며, 지명 전설로 고착된 본토에 비해 한 인물의 생애를 이루는 삽화로써 인물 전설인 점이 특이하다. 인물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범한 인물들의 일생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 본토의 전설에서는 날개를 가진 '아기'를 전부 거부하였음에 반하여, 제주의 경우는 '날개'만을 거부했다. 즉 본토 전설이 날개 달린 장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데 비해 제주 전설은 '날개가 달려 장수가 된다'는 그 사실만을 거부한 것이다. 본토의 아기장수형 전설이 현실적인 죽음을 용마의 출현을 통해 민중의 가슴 속에 아기장수의 영상이 살아 있게 하는데 반해, 장수는 죽더라도 (날개는 제거되더라도) 인간(일상적인 사람)만은 살아 있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아기장수를 죽여야 하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가치관에서도 차마 그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과 통하는 순수한 것이며 곧 제주 사람들의 의식과 통한다고도 본다. (pp. 121~122, pp. 136~139) 장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장수가 될 수 있는 자질만을 거부해서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데, 차별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겨드랑이에 날개 돋은 아기장수가,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한 세상 살아가도록 하는 이 전설 구조는, 주변부 사람들의 좌절된 꿈과 그 삶의 양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육지부 전설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설득력 있는 해석이지만 본토의 동일 유형 전설을 대비해 볼 때 조금은 비약적이고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

3) 翰林大學校 國文科 編, 「江原口碑文學全集(1)」, 翰林大出版部, 1989. p. 139.

4)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1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5. pp. 238~239.

불인다면 “아버지는 장도칼을 가져다가 눈물을 머금고 작은 아들의 날개를 딱 찍었다.” (4), “만일의 경우 집안이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까와하면서도 지저버린 것이었다.” (6) 등의 예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엔 그 정서 추출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sup>5)</sup>

(8)은 地官 백정시의 예언대로 태어난 날개 달린 아이가 혼자 전술을 익혀 살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요, (9)는 풍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의 아내가 날개를 지저 힘을 잃었다 하니 좀 특이한 경우다. (12)는 아기장수가 태어나자마자 피살되는 전형적 예다.

위에서 지적된 대로, 제주의 장수설화가, 지명전설로 고착된 본토에 비해, 인물전설로의 성격이 짙으며 비극적 결말이 많지 않음은 중요한 차이이다. 이는 아마도 장수의 출현을 간구하는 제주인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설화에서는 합리적 설명을 위해 풍수, 단혈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朱天子가 났다고, 朱天子 아버지의 묘가 있다는 王侯之地로 운위되고(「集成」, 제주 六大 名穴과 주세 무덤), “제주도에는 화산이지만 名墓가 많이 있어 놓으니까 (역적이 날까 보아) 그 목수를 地理에 연구 있는 사람만 보냈다.” (ibid., p.384)는 데까지 나아간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소망을 상상 속에서나마 이루게 해 주고, 현실로 이루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익한 것이 풍수설화다. 그런데 특히 전설이 비극적 결말로 감정을 고조시킨다고 보면,<sup>6)</sup> 전설만이 줄 수 있는 비장감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설이란 장르의 시작은 바로 이 죽음의 정점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다는 구조적 특질<sup>7)</sup>에 유의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아기장수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영원히 살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빨리 나타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5) 부모가 날개를 자를 때의 고민이 「大系」나 「集成」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은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6) 전설이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전설의 비극성은 신화나 민담과의 상대적 개념이다.

7) 姜恩海, “傳說的 삶과 죽음 以後의 세 變容”, 金烈圭 編, 「韓國文學의 두 問題-怨恨과 家系」, 學研社, 1985. p.95.

향유층이 차마 장수를 죽이지 못하고 살린 것이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戲化한 (2)吳察訪(2/2)을 들 수 있다. 담이 크고 재담이 좋은 오찰방은 벼슬도 방귀 덕으로 얻어 '방귀 찰방'이란 별명을 듣고, 그를 혼내 주려고 팔도 선비들이 씨름하자고 하자 배의 닻줄을 미리 잘라 놓는 꾀로 그들을 물리친다. 여기에는 장수로서의 기개나 힘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설의 민담화를 잘 보여주는 한 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장수가 逆將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리라. 역사적 인물에 아기장수 모티프가 접합된 '金通精 將軍'(「傳說」)의 경우는 전형적인 예다. 날개와는 무관하지만 전봉준(「大系」 5-7), 안구홍(6-12), 안담산(6-12), 강목발이(8-4, 8-10) 등도 제주의 이재수<sup>8)</sup>, 방성칠(이상 「大系」) 등과 함께 이를 잘 보여준다. 아기장수 전설의 전형적 전개와 다르고 아기장수가 탈출하여 살아나거나 벼슬하는 것이니 중국은 실패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기장수 전설의 '成功型'<sup>9)</sup>에 해당하는 몇 예 중 하나로, 제주의 그것은 부모의 보호로 이루어져 있어 특이하다.

(아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아들의 옷을 벗겨 보았다.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겁이 덜컥 났다. 살짝 옷을 입히고 이 말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다. (2)

(남자로 변한 지렁이가 밤마다 찾아와 통정한 후) 그로부터 허리가 점점 커져서 과부는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돌아나고 있었다. 과부는 이런 사실을 일체 숨기고 고이 아기를 길렀다. (「傳說」, 金通精 將軍)

인물(장수)을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기장수를 보호하고 그나마 있는 인물을 살게 했을 것이다.

(4)에서, 며칠을 생각한 끝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날개를 찍는 순간 쌍둥

8) 이재수의 경우, 죽은 후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설화도 채록되어 있다. (「설화」 pp. 116~117)

9)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pp. 150~152.

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날개를 꺾는 줄 알자 큰아들은 날개를 펴고 퍼뜩 밖으로 빠져 나가 훨훨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작은 아들은 마당까지 날아가다가 날개가 한쪽 잘렸기 때문에 더 날지를 못하고 떨어졌다. 남게 된 힘이 센 작은 아들보다는, 영영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에게 기대나 염원이 가능성으로 투영되었다고 본다. 장수의 출현이 간절할수록 더 그럴 것이다. 사라진 장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혼학이 뛰어나고 묘자리를 잘 본 백정시는, 나라에서 이를 알면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아 집을 나가 혼자 무술을 배운다. 이어도로 갔는지 확실한 행방을 알 수 없다 하니(『集成』, 백정시), 언젠가 돌아올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힘 센 사람을 보면 부대각 주손이라 한다. 부대각의 묘는 현재 평대리 남쪽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4), p. 171)고 전해지는 경우, 과연 얼마나 향유층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무덤이 들면 나쁜 일 일어나는 산’이 기우제와 연관되어 많이 전하고 있는데,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大系』) 역시 그렇다. 흥미로운 것은, 산방산 위에 산을 쓰면 꼭 장수가 날 禁葬地가 있다는 이 이야기에, 날개 돋은 아기 장수가 두번째 좌절하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그 저 신체에다가 이 저드랭이에(저드랑이에) 놀궂 돌았다고. 묻언봐둔 신체에. 이제 그 놀궂 돌아서 이제 그 신체가 하늘 옥황더래(옥황으로) 울물라고(오르려고). 그렇게 울르며는 이제 그 짜순이(자손이) 어떻게 이제 뭐 장수가 이제 될란가 돼. 그래서 항상 여기엔 산 못쓰게 힌여.(p. 638)” 하고 장수가 많이 나음을 과시하고 있다. 화자가 장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 (7)에서 목사에게 청하여 얻은 將軍地에 부친의 묘를 쓰자마자 날개가 돋은 문사령은, 좀 참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궁궐을 돌아다니며 장난치다가 참수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는 화자는 안타까워하며 비판하고 있다. (“딱계, 이때에 저기 아방울 묻었어. 이놈의 새끼가 멍청한 놈의 새끼라. 아방울 묻은 곧 나오난, 그자 내가 터져. 내가 탁 터져. 사름 못 넘게 내가 지난, 이놈은 잇단 그 상뒤꾼(상두꾼)을 심영 퍽퍽 데겨. 이놈이 머 볼썸 놀개 돋은 놈이.”(p. 38)) 오찰방(9-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날개를 잘렸어도 힘이 장사여

서 역적을 잡으려 하였으나 힘에 부치자 백발노인(神靈)이 나타나 역적을 잡을 방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 공으로 장군 벼슬을 주려고 신체정사를 하다가 날개 짧은 자국을 보고 “—— 이거 대단 잘못 됐다. 그리 아녀시민 (아니 했으면) 이거 천아명장 될 건디. 이거 춤 아이 됐다.’ 허여서 자장군 벼슬은 못 주고 그 때 찰방과거 하나 ——” (p.157) 받았다 한다. 화자가 아기장수를 옹호하는 의식은 전국에 공통적이라 제주만의 특색이라 하기엔 무리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발설로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본토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면과 야만적이고 불길한 면을 동시에 지닌 여성의 양면성<sup>10)</sup>과 비극성의 고조를 전제하면, 어머니의 발설로 아기장수가 재기에 실패하는 대목은 이 설화의 절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전설의 민담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주 지역의 전설이 증거물보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설화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아기장수의 출현과 재생의 실패에 있다고 보면, 전자를 간절히 바라는 향유층의 願望이 어려 있는 것이라 본다. 또 화자가 날개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도 이 이야기를 전설로서보다 민담으로 간주함을 보여준다. (장사 양태수(「大系」)이 이야기는 사실담이 아니다 또는 과연 사람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겠느냐. 오찰방(「大系」: 날개가 돋았다고 말은 해도 어디 며 날개 돋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아메도 춤 상당이 다싸난(민철했던) 모냐이여. —— 놀게길(날개를) 그차브렝젠(꿂어버렸다고) ㅎ되 아메도 그디 그 씬(힘줄)을 하나 끈어 부린 모냐이여. (pp. 152~153))

본토인에 대한 대결의식 같은 것 속에 감춰진 것은 섬 사람들이 가지는 열등감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무한한 힘의 소유자로 등장한다는 지적(「설화」 p.166)에 유의할 만하다. 본토인에 대한 반감 내지 열등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제주의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요, 이러한 의식이 상당 부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이 선망과 반감의 양면성이 두드러진 한 예로 (2)를 보자.

10) 許禧,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濟州島 巨女說話의 性格-”,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 白文社, 1993. p.542.



장안에서는 제주놈(오찰방)이 무서운 도둑을 잡아온다고 야단들이었다. 오찰방은 궁중으로 말을 몰아 들어가려 했다. 「이놈, 제주놈이 말을 탄 채로 어딜 들어오려고 하느냐!」 호롱 소리가 떨어졌다. 오찰방은 역시 좁은 데에서 난 사람이라, 마음이 졸해서 얼른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다. — 임금님은 오찰방을 (역적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서) 옥에 가둔 후, 문초를 해 보니 제주놈이요, 또 궁중에 들어올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온 것을 알았다. 임금님은 안심하였다. 「서울놈 같으면 사형을 시킬 것인데, 제주놈이니 큰일은 못할 것이로다. —」 (1/2)

(방귀로 찰방 벼슬을 한 오찰방에게) 팔도 선비, 장안 한량들이 트집을 잡았다. 「제주놈 도야지 다리 그만 하면 얼마나 줄까?」 「서울놈의 네 에미 십 세 번씩은 주지요.」 오찰방은 태연히 대답하고 이만 잡는 것이다. 말하는 꼴이 더욱 분하기 한량없는 노릇이다. (2/2)

나라의 장군은 임금 앞에서도 말을 타는데, 어느 뎨 어떻게 말을 탄 궁궐로 들어가는데 그때 영의정이, 「생시에 범돌(말을 타고 들어가는)은 못합니다.」 하니 그냥 살짝 말을 부렸거든(버렸거든). 말을 부리니(말에서 내려 임금 앞에 나가니)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한 道를 지키라고(지키게 하기 위해서) 끊어 주기로 했는디 지금 말을 느리는 걸 보니, 제주놈은 마음이 조그니 홀수 었다.」 하면서 겨우 찰방을 주었거든. 오찰방이 그렇게 되니 가슴이 여간 서늘하지 아니하여(애석하였다). 화가 나서 돌아오는디 역불(일부러) 그 원수를 갚을라고 — 서울로 내달아 그 영의정을 죽여버린. (「설화」)

본토(인)에 대한 강렬한 반감과 선망은 제주 설화의 중요한 단면으로, 무속 신화에 보이는 외래신에 대한 호양<sup>11)</sup>과도 연관지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다.

문국성과 소목사(傳説)의 경우, 명당에 쓴 묘를 왕명을 받은 소목사가 옮겨가게 하는 바람에 문국성은 영웅이 되지 못하고 그 집안도 망해버렸다. 풍수와 개인의 삶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11) Cf. 許椿, “韓國 神話의 系列論-競合과 互讓-”, 「白鹿語文」 9輯, 濟州大 國 敎科, 1992.

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이보다, 벼슬을 하지도 않고 전공을 세운 일도 없는 문국성을 왕이 경계하였다는 사실이다.

涯月面 納邑里에 문국성이라는 이가 있었다. 용모가 장군의 형세요, 풍채가 으리으리하고 힘이 장사였다. 문국성은 서울에 올라가 장안을 주름잡아 거리길 대가 없었다. 임금님이 문국성의 행세를 보고는 은근히 걱정하였다. 이놈이 용모는 장군형인데 너무 험잡스럽게 행세하는 것을 보니, 국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國地理로 있는 蘇牧使를 제주 목사로 보내기로 했다. 지리에 능한 소목사가 문국성의 先墓를 탐색하고 미리 조치를 강구하려 함이다.

서울에 올라가 거리길 것 없이 장안을 주름 잡고 풍채나 힘이 왕이 주목할 정도로 뛰어났다 함은, 소망의 반영이요, 열등감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울릉도 시조 유래담<sup>12)</sup>에 보면, 울릉도의 시조는 날개 돌린 장수인데 본토에서 관군이 쇠붙이로 찍어내는 것을 피하여 온 것이라 하니, 시사하는 바 크다. 孤島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다. 말하자면 꼭 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지닌다. 그런데도 그나마 귀한 인물을 자꾸 죽여 없애면, 본토와의 대등한 위치에 서기는커녕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컸으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힘을 잃은 아기장수'가 제주에 친숙하게, 널리 나타나는 것이 수긍이 될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이 유형이 타지역에서도 채록되어 있어서 제주만의 특색이라기엔 무리겠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제주같이 일정 형식을 갖춘 예가 별로 없다. 제주인이 인물을 바라는 소망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성공의 폭과 깊이를 상상하면서 향유층의 소망을 충족시키고, 좌절한 아기장수를 가슴 깊이 묻기보다는 그보다 못하더라도 凡人과는 다른 異人을 바라는 제주인(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날개 달린 장수가 실제 인물로 이야기되는 것도 사실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점은 "차마 죽일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통하는 순수한 것"(『설화』 p.136)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12) 崔來沃, op. cit., p. 151.

다끄내 정서방, 닥발 정운디, 새샘이, 다리 송천총, 심돌 부대각, 논하니(이상 「傳說」), 짜망이, 최동이(이상 「樂成」), 오찬(「大系」) 등 제주에는 장사가 많다. 장사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된 것일 게다. 그런데 제주의 장사들은 食量을 채우지 못하고 배끓은 장사가 유난히 많은데, 아마도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척박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리라. 한 섬 쌀과 돼지 한 마리를 먹어야 겨우 배가 차기 때문에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 보지 못하고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관에 잡혀 간 정서방의 죽기 전 소원은 실컷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이래서 한 섬 밥과 소 한 마리로 난생 처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런 후 큰 바위를 정서방의 몸에 달아 바위에 던졌는데도 삼일 동안이나 물 위로 솟구쳐서 살까요, 죽을까요 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부모는 살아 나와 배고파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여 살라고 하지 않았다. (「傳說」 말머리) 제주의 困乏한 삶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막산이, 새샘이는 이런 전형이다. 오십인분의 밥을 한꺼번에 먹고 일 역시 오십인분을 할 정도로 체구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며 일을 잘 했으나, 배를 채우지 못해 밤마다 도둑질을 해야만 했던 中文里의 종 막산이(「傳說」 막산이)는,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자기를 받아줄 집을 찾아 전전하던 막산이는 翰京面 부근에 숨어 살면서 곡식이나 마소를 뺏어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 천민 출생이어서 여기저기 종 노릇을 하던 새샘이도 배가 고파 도둑이 되어 곡식이나 마소를 약탈해 먹었다.

주목할 인물은 정운디다. 닥발(沙溪)에 살던 정운디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혔다는 大靜의 오찰방을 씨름할 때마다 이겼다. 오찰방은 좋은 집안의 자식이요, 정운디는 천한 종이다. 오찰방은 천한 종인 정운디에게 한 번도 이겨 보지 못하자 억울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심지어는 집 지을 재목을 한집 가득 지고 주그려 앉아 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잡아 눌렀어도 끄떡도 않고 오히려 자기만 뒤로 굴러 떨어졌다. 아들이 한탄하는 것을 보다 못한 오찰방의 부친이 쌀섬을 보내며 정운디에게 한번 저 달라 사정하자 배는 크고 살림은 궁한 정운디는 얼른 이를 수락하였고, 이래서 오찰방은 딱 한 번 이겨 봤다 한다. 장사가 배를 채우기 어려웠던 사정은, 꼴을 묶으러 간 논하니까 오

십인이 먹을 점심을 혼자 다 먹고 오십인이 할 일을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논하나는 이 때야 처음으로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았다는 것이다. 날개가 돋은 오찰방을 가볍게 이긴 정운디야말로 설화 향유층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리라. 정운디는 관에 협력하여, 움부리와 오찬이괘(굴 이름)의 도둑떼와 새샘이를 잡았다.

오찰방은 大靜縣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튼튼한 자식을 낳으려고 임신한 부인에게 소 열두 마리를 먹였는데 딸을 낳았다. 그러자 다음에 임신했을 때는 딸을 낳을지 모른다면 소를 아홉 마리만 먹였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오찰방이니, 누나에게는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한번은 높은 절벽에서 나막신을 신은 채 뛰어 내렸어도 안전한 것을 보고, 아들의 옷을 살짝 벗겨 보았다. 아버지는 거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보고 겁이 덜컥 났지만, 살짝 옷을 입히고 이 말이 절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다. 그래서 오찰방은 도둑을 잡아 임금님을 배알하고 찰방 벼슬을 할 수 있었다. (2) 당시 제주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난하여 이부자리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살지 못하던 때인데도(『傳說』 p.60), 오찰방의 집안은 자식 낳는다고 귀한 소를 이십여 마리를 먹일 정도로 부유하였다. 또 아들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정운디에게 쌀 섬을 보내 자식과의 씨름에서 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살림에 여유가 있었다. 많은 아기장수가 천민 집에서 출생했는데, 오찰방은 예외적이다. 게다가 오찰방의 날개를 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찰방은 닥발 이씨 덕 종인 정운디에게 도저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는 날개 그 자체보다 천민 출신임을 더욱 중시하는 설화 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펍 흥미롭다. 장수의 출신이 부유층이니, 향유층은 구태여 날개를 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개'는 곧 '역적'으로 인식되는 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양반(내지는 토호)이라면 역적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이겠다. 가문 보존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을 집안에서 날개를 감쌌음은 그만큼 역적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주 설화를 검토해 보면 인물의 출생이나 실패 이유를 풍수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풍수설화는 전국 광포설화이긴 하나, 가시나물 김선생,

도원리 강훈장, 고전적(이상 「大系」) 같은 명풍수 이야기가 좁은 땅에 비해 많은 것은, 역으로 地氣에 의해서라도 인물이 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날개 달린 아기가 장사로 살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겠다. 제주에 인물이 나오지 않은 것을 斷血 탓으로 돌리는데 '고종달(胡宗旦)형 전설'(「설화」의 명명에 따름)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제주의 풍수설화는 斷脈모티브를 중심으로 엮어졌으면서도 신앙전설로서의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어서 제주 사람의 운명이 고종달의 단혈에 의해 결정지워졌다고 보면<sup>13)</sup>, 삶을 방향짓는 풍수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집착이 간다. 절인에게 인색하여 집안이 망했으나, 그 집안의 착한 며느리에게 구원 받은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 좋은 뒷자리를 잡아 주자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설화(「集成」 가시오름 강당장)는 이를 잘 반영한다. 장자못 전설 같은 결말도 좋은 뒷자리로 바뀌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혈에 얽힌 풍수담은 수없이 많다. 명당에 대한 욕구 또한 어디나 같아서 '정성(수완) 들어 명당 얻기'(「大系」의 명명임. 이하 "로 표시함)가 대단히 많다. 다른 지역의 아기장수 전설도 풍수 모티브와 깊이 결합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제주에서 이 유형의 설화가 갖는 의미는 각별히 부각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언할 점은,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제주도의 장사나 이인 설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다. 예컨대 제주도 키다리, 제주도의 천하여장사(이상 「大系」) 등이다. 그리고 바보 이야기(바보 머슴, 바보 가족, 바보 사위, 모자라는 며느리 등)가 거의 없는 것도 '장수(인물)'와 연관지어 살펴볼 일이다.

### Ⅲ. 건달설화

타지역에 비해 제주에 인물설화가 많음은 전술한 바다. 그런데 집성촌이라 할 정도로 서로 血緣으로 맺어져 있는 제주의 인물 중, 주목을 끄는 것은 효자·열녀보다 건달이라 범칭할 수 있는 인물군이다. 제주는 남을 속인다든지

13) 玄吉彦, op. cit., p. 237. f.

곳곳은 행동을 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잡보 행실을 하는 전달형 인물은, 지역에 따라 김선달, 정만서, 정수동, 방학중, 태학중, 진평구 등으로 대표된다. 제주의 경우 변인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강벌태, 전만능, 양장의, 얼쭈 등도 이에 포함되는 예이다.

(1) 변인태 : (ㄱ) 西歸鎮 邊仁泰(「傳說」), (ㄴ) 서귀진 배인태 (ㄷ)~(ㄹ) 변인태 (9-3: 82(面數. 이하 같음) 3/3, 390 (3) 2/2, 82 1/3, 407 (4) 2/2, 129 1/2, 390 (3) 1/2, 407 (4) 1/2 (ㄺ) 배인태(이상 「大系」), (ㅋ) 뽕인태(「集成」)  
(2) 전만능 (3) 강벌태 : 강벌태와 정유학 (4) 양장의 : 가령 양장의(이상 「大系」)  
(5) 얼쭈(「集成」)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변인태는 西歸鎮의 官屬 下人인데, 지모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며 거짓말 잘 하기로 유명하였다. 하루는 助防將이 아내를 집(新村)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바빠서 변인태더러 모셔가라 했다. 서귀진에서 신촌을 가려면 한라산을 가로질러 넘어가야 한다. 산중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변인태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산중에서 밤을 새게 하였다. 밤이 깊어 가자 일부러 사람 우는 소리, 여우 우는 소리 등을 내서, 무서워하는 상전 부인을 끼고 누웠다. 그 후 변인태는 술이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일을 구실로 상전 부인에게 가서 받아 먹었다. 또 목사가 먹을 고기를 먹기도 하였다. 고기를 태워 가자 먼 불에 은근히 새로 구워 오라고 하니 望臺의 불에 고기를 들고 서 있을 후 생고기로 가져가 그 고기도 다 먹게 되었다. 나무라는 목사에게 “먼 불에 은근히 구워라 하시기로 멀리 있는 망불에 쪼습니다.” 하고 있다. (ㄱ) 語戲를 통해 상대를 골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旌義 현감이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반성하도록 공격할 때도, “역두형은 거딱거딱 우리 스포 아랫 ㅁ실(마을)도 거딱거딱” 하며 우회적인 수사를 통하고 있다. (ㅋ)

이들은 상전을 골려서 향유층의 代償 심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孤島이기 때문에, 양반이나 土豪의 횡포가 더욱 심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목사가 도입하면 한라산 遊山 구경으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침이 자심하자, 강침이 달려들어서 “이런 놈 놔두면 백성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며 사또가 받아 놓은 음식상을 발로 차 버렸다. 그래서 강침은 말

꼬리에 상투를 매는 형을 받고 죽었다. 화자는 “下原(서귀포시 중문동의 동네) 날래 강침 선세가 아마 영웅으로 났던 모양이라.” 하며 강침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다. (『大系』 날래 강침(姜宅) 선세(先生)) 이를 통해서도 관원으로 인한 폐해와 향유층의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거짓말 해보라는 양반 숙여서 골려주기’, ‘윗사람 욕보인 아랫사람’의 대표적 인물인 변인태는, 흔히 ‘뱅인태’, ‘배인태’ 등으로 구전되는데, ‘변인태 전설’(『大系』 p. 131)이라 할 정도로 향유층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변인태의 거짓말에는 냉소라기보다 밝은 웃음이 풍기고 있다. 또 상전을 욕보여도 궁지로 몰지 않고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든다. 조방장의 아내와 동침해도, 조방장의 고기를 차지해도, 심지어는 조방장을 파직하게 하여도 (ㄷ) 그러하다. 목사의 방석을 덮게 하는 것도 직접적 공격보다 자신의 위기 모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ㄴ), 조방장의 음식을 뺏어먹어도 적의를 풍기기보다 웃음을 자아낸다. (ㄹ) 한두 예를 든다.

그 조방장이 제주시에 사름이라, 제즈시에 사름이라. 혼 번은 배인태를 불러 가지고, 너 이거 저 우리 本宅의 지어 가라. — 뉘인고 ㅎ니 밧가는 잠데(쟁기) 이서(여기서) ㅎ나 멘들아. 누게(누구) 빌언 멘들아가지고, “이 걸 저(지고) 가라”고. — 게난(그러니) 그 때는 한질(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일주도로를 가리킴)로 돌젠(돌려고) ㅎ민 市가 오직 머우파게. 경 ㅎ니 까 산질로, 산질로, 경(지고) 가젠 ㅎ민 수플 가운데 가민 그(나뭇가지)디 (곳에) 걸력, 저디 걸력 오죽이나 고생이여. — 가면서 어떤 연구를 ㅎ고, ‘이 사름은 파면을 시겨 부러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굴면.’ 그래서 저 갔읍니다. 저 가서 ㅎ는디, 갈 때에 조방장안터 물었읍니다. “아니 본택(本宅)에 저(지고) 가라니 어디 濟州城에 가민 어디가 당신네 댁입니까?” “아, 제주시 가머는 큰 대문 혼(한) 것이 우리 집이다. 큰 대문 혼 집의 저 가라.” “예” 갔읍니다. 가가지고, 슝(使道) 사는 디 큰 대문을 흡니다, 슝. — (사도가 변인태에게 묻기를) “뉘, 밧가는 거? 아, 게니(그러니) 어째서 너 여기 지고 왔나?” “서귀포(西歸浦) 조방장이 여기 저 가라곤 해서 저 왔읍니다.” “어, 어째서 너 여기 저 왔나?” “아, 제주시에 큰 대문 혼디 꼭 저 가라곤 ㅎ길레 그자 여기 저 왔읍니다.” “오. 그러냐. 괴약혼 놈 곱으니라고, 그놈(西歸浦 助防將) 수직서(辭職書) 써라.” (ㄷ)

훈 조방장은 새로 왔는데, “너 독(닭)을 훈 머리 잡아서 삶아 와라.” “너 독 잡되, 잡아 삶아 오되 거 고기는 건드리지 말고 오고생이(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삶아 오려든.” — 조방장이 (창자를 끊어 내고 쌀을 넣어 배를 잘 꿰맨) 독을 영 보니까니 독이 원 털은 없지만은 삶으면 삶았는지 말았는지 모른 뿐 아니라 오고생이 그냥 이시니 원 거 뭐 늘(칼날) 대여서 원 끊어 난 것이 었거든. — “너 이놈, 독을 창지나 때여두고 삶아 와야지 창지 채 삶아와?” “예, 그자 죄송합니다.” 했수낸도(했다고도) 안하고, 안했수낸도 안하고, “예 죄송합니다.” “너, 이거 갖당(가져다가) 먹던지 버리던지 —” (닭 배 안의 쌀부터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조방장이) “아, 거 먹었직하네. 거 이례(이리로) 가정(갖고) 와.” “없습니다. 이거 먹었당 장군님 큰 뺨 납니다. 창지 채 독 먹어 그네 큰일납니다.” 누시(철대) 훈 점 주지 아니하폭(않고) 다 먹었주. (초)

전만능은 근래에 살았던 인물인데, 어휘를 이용한 해학적이고 악의 없는 행동으로 웃음을 준다. 소는 뒷턱에 앞니가 없는 게 당연하고, 누구나 장가를 가면 처를 두는데 그 처는 바로 처남의 누님 아니면 누이동생이다. 전만능은 이를 순간적으로 혼동하게 하여 상대를 골탕먹였다. (2) 이름처럼 萬能인 경우다.

강벌태는 본토에 장사를 하러 다닌 사람인데, 본토 사람들에게 외동박(남알이 하나만 들어 있는 둥그란 동백 씨)을 버섯 씨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 또 본토에 가서 소금배가 들어온다고 酒母를 속여 외상 술도 먹었다. (3) 본토인이라서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도 여자들이 시집가려고 하지 않아 흠땀으로 지낸 백수장(「集成」 백정시)의 예에서 보듯, 외지인에 대한 의식이 경직되어 있으므로 본토인을 우위에서 회롱하는 행동은 상당히 호응을 받았을 것이다.

가령 梁掌議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으로, 자주 본토에 가서 생활하면서 서울 양반들이나 장사치들을 말로써 골탕먹인 사람이다. 서울 태학관(성균관) 선비들이 마루의 널을 빼고 그 위에 방석을 놓으니 양장외가 그 자리에 앉다가 마루 밑으로 빠졌다. 이를 보고 선비들이 웃자, “하관시 대헌(당한) 상주들이 웃기는 왜 웃느냐?”, “조상이 하관할 때는 슬퍼서 울어도 시원칠 않을텐



데 웃기는 ——.”(4) p.412) 하여 태학관 선비들을 다 자자손손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주에서 흑쇠(검은소) 진상이라 해서 검은소를 일년에 한 마리씩 임금께 진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라 감사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받지 않자 이를 안 양장의가, 진상품 받는 사람이 香火도 아니하고 의관도 정제하지 않고 받냐고 따져서 오히려 삼백 냥을 받고 소를 바치게 했다. 또 당시 서울의 상점들은 그저 구경만 하려고 해도 뭘 사겠느냐며 독촉을 하니 사지 않으면 구경도 못하였다. 특히 차린 모습이 촌놈이면 더욱 그러하였다. 자기를 촌놈이라고 알보는 서울의 저자 거리에서 양장의는 벼보섭, 어랭이(바다고기 이름) 낚시 등을 찾으며 서울 상점을 다 구경하였다. (4)

특히 본토에 가서 생활한 양장의의 예에서 잘 나타나는 바, 제주인의 대본토관이 잘 드러나 있다. 힘에서 뿐 아니라 기지로도 본토인을 이긴 점을 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서는, 본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함께 선망과 반감이 어울어진 양면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은 표현이나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4)에서 한 부분을 보겠다.

(양장의는) 제주 태생으로도 서울에 늘 출입하여 가지고 태학관(성균관)엘 가도 제주 梁아무개가 왔다고 하면 태학관 선비들도 췌이든지 의견으로나 말로나 떨어진다 말이며. —— 그 땐 제주 사름과 시방도 좀 차별이 있겠지만 육자 배술(벼술) 자리를 하는 사름과는 비교하면 차별이 심했주. (p. 412) —— ㅎ난, 제주 있었주마는(제주 사람이었지마는) 제주 양 아무개 ㅎ민 제주 있었주마는, 제주 양 아무개 ㅎ민, 일퐁(이름)이 있었주.

변인태 같은 인물 중 경북 지역의 방학중을 보겠다. 방학중은 영해 지방 인물전설의 주인공 중에서 가장 지체가 낮고, 가장 보잘것 없는 인물이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쪼고 있는 떡보리를 빼앗고 남의 아이를 방아 확대다 넣는 짓까지 하니, 이 경우의 파괴는 화적 같은 짓이다. 방학중은 인정을 파괴한다. 상대방이 인정을 그대로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약점 삼아 상대방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서로 믿는 것이 없게 한다. 거부하고 파괴하기만 하지, 얻는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럴 재간도 없다.<sup>14)</sup> 방학중 설화는 친근감을 지니고 후세에 구전되어 오며, 얼마간은 우상화한 것이다. 투쟁의 결과 세계가 개조되지 않으므로 진전이 없는 것이며 허욕을 가진 무리들이 그 상대이긴 하지만, 방학중의 행위를 두고 '전설적 죄절'이나 '민중의 잠재적 능력을 암시'<sup>15)</sup>하고 있다고 봄은 확대된 의미 부여라고 본다. 방학중은 건달의 범주에 드는 인물로, 윗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부수적이다.

얼수는 좀 특이한 예다. 그는 旌義縣의 관노였는데, 현감이 자기 방에 들이는 기생은 반드시 사령방을 거쳐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자 이를 기화로 현감 방에 들어가는 모든 기생들과 사전에 관계를 가졌다. 그러고는 자기는 현감의 동생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나, 현감은 소문이 번질까 두려워 어떤 벌도 내릴 수 없었다. 일개 관노 신분으로 현감을 우롱하였다. (5)

'애프기' 유형<sup>16)</sup>이라 할 수 있는 변인태 같은 인물은, 본토의 김선달, 정수동, 방학중 등과 비교해 볼 때, 불박이라는 점이 주요한 변별성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사느냐 아니면 떠나서 나다니거나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긍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를 뜻한다고 볼 때<sup>17)</sup>,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서 지방의 특색이겠지만, 불박이라는 점은 곧 행동의 제약을 불러온다. '기존 윤리 관념에 대한 도전'은 이들의 공통점이지만, 불박이는 자연히 그 표출 방식이 과격하지 않고 공격대상도 무차별적이진 않다. 이는 방학중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그 방식이 語戲에 의하는 점은 어디나 공통적이지만, 동네 주민의 애를 방아 확에 넣는 식의 끔찍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양반에 대한 공격도 敵意가 넘치지는 않

14)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pp.279~294. passim.

15) Ibid., p.284, p.446.

16) 金大畝, "說話에 나타난 階層意識研究", 「韓國說話文學研究」, 集文堂, 1994. p.294.

17) Op.cit., p.416.

는다.冬至에 팔려고 쭈어 놓았다가 날이 풀려서 쉬어 버린 이웃집 할멈의 팔죽 네 동을 팔아 준 김선달의 일화<sup>18)</sup>처럼 혼 혼한 인정이 풍긴다. 그리고 집성촌이라 할 정도로 얽혀 살던 제주의 상황과도 연관되는 것일 게다.

전반적으로 보아 제주에는 '속고 속이기'(「大系」의 분류)가 본토보다 적고 짓궂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예컨대 전국에 광포되어 있는 '여자 난처하게 하는 내기(하문 보기, 입 맞추기 등)', '초상났다고 부의금 거두기', '엉뚱한 짓으로 여자 속여 이용하기' 등은 채록되지 않아서, 엉뚱한 짓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분별해 가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등이 다 자기보다 뛰어난 상대를 만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변인태 등의 경우는 그런 상대를 만난 일이 없다. 이게 불박이와 떠돌이의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데, 물론 지리적 위치의 차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說話 속의 女性

본고는 原型像을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표출된 의식의 상황을 살피려는 것이므로 무의식의 내면 분석보다 현상 구명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인간은 본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여성은 이 점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여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딸, 딸과 어머니, 貞女와 淫女 등의 여러 측면을 지닌다. 그리고 문화영웅 같은 풍요롭고 창조적이며 앞일을 예지하는 긍정적인 면과 야만적이고 불길한,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계모도 전실 자식을 죽일 정도로 극악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불로 인한 인간의 발전을 시기한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 프로메테우

18) 팔죽 먹으러 온 손님에게 김선달이 할멈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주인님 초도 좀 칠까요?" 그러지 할멈이, "사람 봐가며 쳐야지, 아무나 치나?" 손님이 이를 듣고 "그 초 좀 많이 쳐 주시오." 하며 양반 행세 하느라 맛도 안 보고 초를 더 쳐서 먹은 후 "죽 맛 좋다. 오랫동안 팔죽다운 팔죽 먹어보네" 하였다. 이런 식으로 쉬어버린 팔죽을 다 팔아 줬다.

스에게 보낸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가 '아름다운 邪惡'과 '철저한 欺瞞'으로 이루어진 역설적 창조물<sup>19)</sup>임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설화에는 여성의 우위성이 나타난 예가 꽤 많다. 熊女(檀君神話)를 위시하여 柳花(朱蒙神話), 善花公主(善童說話), 平岡公主(溫達傳), 萬明(金庚信傳) 등은 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이루고자 한 여성이다. 조선조의 女傑系 小說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러한 여성의 여러 측면이 '女多'의 섬인 제주의 설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토의 설화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이나 화소별로 특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

말을 낳은 데 실망하여 소를 세 마리나 덜 먹인 데서도 남아 선호 관념이 보이거나(II-(2)), 제주는 힘 센 여자 이야기가 많다. 始興里 玄氏 男妹(傳說) 같은 '오취 힘내기'형 설화의 누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文萬戶 며느리, 심돌 姜氏 할망, 泰興里 慶金宅 며느리, 애월면 하가리 '쇠 죽은 못'의 유래가 된 과부(이상 傳說), 힘이 센 할머니, 들음돌 내버린 할머니, 신침 며느리 흥할망(이상 集成) 등 그 예가 많다. 이는 제주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 女權의 표출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주의 한 마을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노동 천시와 학문 숭상이 크게 강조되어 제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상하고 높은 지위로 계급화하였다.<sup>21)</sup> 그러나 노동은 곧 경제력의 바탕이라고 볼 때, 필자의 지적이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종적을 누설해 피살되거나 재기에 실패한 아기장수가 제주엔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광포되어 있는 '사나운 신부 똥 싸다고 해서 기 죽이기'가 채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러하다. 물론 전국에 광포되어 있는, 선문대할망

19) G. S. Kirk, *Myth-its meaning and function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 229.

20) 許椿, "說話의 女性 研究(I)", 「常山韓榮煥博士華甲紀念論文集」, 開文社, 1993. p. 430.

21)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韓相福 編, 「한국인과 한국 문화」, 暁雪堂, 1982. p. 159.

같은 巨女說話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제주도 무속신화의 진취적 여성상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에서 잘 드러난다. 자청비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이겨냈으므로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될 수 있었다. 영웅은 남성이고 으레 이들의 시련담이 주가 되는 문헌신화와 달리 주체적인 여성의 신적 능력을 보이는 뚜렷한 경우다.<sup>22)</sup> 그런데 무속신화가 아닌 설화의 경우 딱히 그러한 예를 찾긴 어렵다. 이를 통해 본다면, 제주 여성이 꼭 진취적이라 할 수는 없겠다. 명풍수가 후손이 발복할 자신의 묘자리를 알려주는 자리에서 남(곧 자신의 아내)은 빼라 했으며, 유언대로 아버지의 머리만 우물에 넣은 후 결국 들통난 것은 우려한 대로 어머니의 발설로 인해서였다. (『大系』 '여자가 비밀 누설해 망하기(아내는 믿을 수 없다)') 풍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제주에서, 여성의 비밀 누설로 인한 실패담이 거의 전하지 않는 것도 제주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친정의 명당 차지한 딸'이 이신(2/2), 딸이 친정 명당 자리 빼앗은 이야기(『大系』 두 편 채록되어 있다. 전자는 국사책에서 읽었다는데 제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여동생이 일부러 壙中에 물을 부었다가 시아버지의 묘로 했는데, 권제(중이 부처께 빌기 위해 빌어가는 쯤메쌀)에 인색하여 용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드문 결말을 보이는 경우인데, 친정의 명당을 뺏으면 용보를 받는다는 것으로 본다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명당에는 다 제주인이 있음을 알려준다고 풀이하면, 명당 색출을 지상 과제로 여겼던 제주인의 관념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후자는 탈해왕에 비의된 이야기로, 토함산의 지기를 보아 명당을 정하며 딸더러 밖에 좀 나가라 했는데 딸이 엿듣고 그 자리에 자기 시부를 묻었다는 내용이니, 제주와는 별로 연관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부부 사이는 처첩간의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내 버리려는 남편 마음 돌리게 하기'는 진주 낭군 이야기(『大系』)가 채록되어 있으나 제목대로 외지의 이야기다. 제보자의 외지 여행 같은 과거 경력은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이 여성 화자는 민요에도 능해서 진주 낭군 이야기

22) Op. cit., p. 445.

는 민요의 배경 유래가 되는 것을 풀이한 것이라 하니 제주의 여성과는 큰 연관이 없겠다. 진주에 사는 부부 이야기인데 남편의 외도에 목을 맨 부인과 아내를 따라 역시 목을 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화자의 소망이 실려 있는 그 정서는 같다.

(아내가) 즈기 방에(자기 방에) 가서 에 죽어 버리니, 이 이전 (남편이) 보선(버선)발로 팔짝 뛰어나오명, “어와등등 내 사랑아. 네 죽을 줄 나는 몰랐다. 본처는 백년이고, 둘째 첩은 석달인데, 네 죽을 줄 나는 몰랐다. ——” —— 계난(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네도 이자 그 가짜로 이제 그 기생 첩 임시 그자 ㅎ쌀(조금) 살아보다가 그 본처를 이제 백년갓지 이제 믿고 살라고 ㅎ다보니, 이제 그 처는 남편의 심장(마음)을 몰라가지고 ——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해서, 멍지 석 자로 목을 졸라서 죽었다.

일정한 선에서 처첩이 같이 공인되며 각각의 생활을 꾸려 나가는 제주의 생활 양식에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처첩간의 갈등을 말하는 예가 거의 없다. 첩인 노일저대가 본처를 물통에 빠뜨려 죽게 하는 이야기가 한 편 전하는데(『集成』 정이 없는 정소남),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아 무속신화가 구술된 것이다.

다음은 (1) 정이 없는 정소남 (2) 다슴어멍 (3) 남선비와 노일저대 (4) 다슴애기 (5)~(6) 계모의 모략 (7) 오희장과 그의 계모(이상 『集成』)를 대상으로 계모담을 살펴보겠다. (1)은 처첩간의 갈등에 중점이 있고 (2)는 계모의 학대를 못이겨 가출한 아이가 과거에 합격하여 대정현감으로 온 후에, 소첩의 아들이 학대받으며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실정임을 알았다는 내용이다. 계모의 학대보다는 서출들의 생활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3)~(6)은 전형적인 악한 계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3) 역시 무속신화의 구술이다. (5)는 전처 소생 큰 아들이 장가가게 되자 계모가 종을 시켜 신부집의 신방에 가서 紅襟를 훔쳐오게 하여 모략한다는 내용이다. (6)에서는 신랑인 전처 아들의 목을 베어 오게 하는데, 조부 탐색담이다. (5), (6)은 제주 전래의 설화는 아닌 듯한데, “잇날은 대감 정도 돼민 종덜을 썼어”(p.123), “옛날 어느 정승 집의 큰 각시가 ——”(p.224) 운운을 통해 볼 때도 그렇다. (7)은 어려서 생모를 잃은 전처

소생을 정성껏 공부시킨 계모 이야기다. 어느 지역이나 계모의 선악 양면이 동시에 전해오지만, 제주의 경우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를 제외하면 계모의 악함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제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 '시집살이요'는 상당수 채록되어 있으나, 전국에 광포되어 있는 고된 시집살이에 관한 설화가 거의 채록되지 않았다. 이는 구술 장소가 시누이, 동서 등이 섞여 앉은 자리라 그런 탓도 있겠지만, 제주의 가족 생활 권역이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시집살이요'도 본토처럼 구체적인 충들을 나타내지 않고, 어느면 끝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보인다. 본고의 주목적이 아니므로 길게 언급을 피하거나,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하지만 취사나 노동이 개별적이므로 실제로는 시대과 분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가족제인 본토와 크게 다른 점이며, 자연히 의식도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이나 '며느리의 못된 행실 고치기' 등이 전하지 않는 것도 이에 연유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다. 악한 며느리(大系)가 한 편 채록되어 있으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악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설화다. 시모가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것을 '뒷집의 짐서방'으로 염하라 했다 해서 며느리는 벼락을 맞아 죽는다. 불효해서 재앙을 받는 이야기인 바, 아마 화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데도 연유한 것이리라.

## V. 結言-說話의 傳播性

어떤 설화의 특성을 한 지역의 개별적인 의미로 특성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설화를 몇 가지 특성 추출로 포괄할 수는 없겠다. 특히 설화의 전파성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

교통의 불편으로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인 제주에서 본토의 여러 역사적 실재 인물의 일화가 많이 구전되고 있다. 설화가 채록된 것이 매스컴이 발달한 최근이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설화의 전파성이란 측면

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항복(유병어리와 이항복, 오성 이항복(이상 「大系」의 제목, 이하 같음)), 임경업(임경업 장군), 이괄, 홍길동, 강감찬, 사명당(임판서), 허미수(허미수선생, 허미수의 退潮碑, 허미수선생), 서화담(허미수선생), 이토정(토정선생), 박문수(박문수 박어사), 임백호(임백호의 환생), 이퇴계(「集成」) 등 상당히 많다. 또 처용(처용랑), 백설공주(백설공) 이야기도 설화의 전파성을 보여주는 유사한 예라 하겠다.

설화의 공통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예는 '달래나 보지' 설화다. 인간의 본능과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의 충들을 그리고 있는 이 설화가 혈연적이라 할 제주에서 채록된 사실은 한 편이지만 특기할 만하다. 근친상간적 욕구의 발현인 이 설화는, 남매혼 설화와 연관되는 신화적 요소를 지니지만, 대체로 금기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돌랭이(「大系」 9-3)의 경우도, 이야기를 마친 뒤 제보자는 양반의 행동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체통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여 유교적 이념으로 감싸고 있다. (p. 1022) 비 오는 여름날 앞서 가던 누이의 비에 젖어 홰옷에 감싸인 몸을 보고 욕구를 참을 수 없자 “내가 먹음이 아주 쌍놈의 먹음을 먹어서 내 동생을 보고 이제 내가 밀음이 이상케 돼니 에라 못 쓰겠다고” 자책한 오빠는, “웃고름에 칼 창 멩기엄시면은(다니고 있으면) 매(아주) 먹른(모른) 어디 사름인처레(사람인 줄) 먹른 사름이라도 그걸로 봐서 저 사름은 어디 양반 사름이고 글도 읽꼭 이렇게 혼 사름”(pp. 1020~1021)으로 묘사되어 있다. '달래나 보지' 설화는 본능보다 윤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귀결이다. 이 설화의 의미 천착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비껴가기로 하나, 달래나 보지 그랬냐는 누이를 통해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탕에는 인간 본능을 긍정하고자 하는 향유층의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이야기도 본토 설화의 영향이겠다. 그러면서도 전국적으로 광포되어 있는 '남녀 관계 잘못되기'가 제주에선 채록되지 않은 것도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제주 설화의 전반적인 특징과 공통점을 추출하여 보았다. 실제 현상의 기술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



고 볼 때, 본고는 피상적 겉토에 그친 감이 있어 이제 각론에 들어가 좀더 치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필자 역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豫斷이 앞서지 않았는가 하여 조심스러우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중 강조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기장수전설에서는, 아기를 죽이지 않고 날개만 제거하고 凡人的 삶을 영위하게 한 일이 색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요한 특징으로 보아 본토와의 변별성을 여기서 찾으려 한다. 아기를 죽이고 재생에도 실패하게 함으로써 가슴 속에 깊이 묻어 놓는 것과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으나, 죽은 아기가 각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은 분명하다. 좌절된 꿈을 채워 줄, 가슴 깊은 곳의 한을 풀어줄 인물에 대한 갈망이 크고 급하다는 바람이기도 하다.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인간의 본성이자 제주인의 의식으로 보는 것은, 이 전설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얼마간 확대된 관점이 아닐까 한다. 좁은 땅에 비해 풍수설화가 대단히 많고 비중도 큰 것은, 역으로 지기에 의해서 인물이 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변인태로 대표되는 건달들의 거짓말에는 냉소라기보다 밝은 웃음이 풍기고 있다. 본토에 가서 생활한 양양의에서는 제주인의大本토관이 잘 드러나 있으니, 본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와 함께 선망과 반감이 어울어진 양면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변인태 같은 인물은, 본토의 김선달, 정수동, 방학중 등과 비교해 볼 때, 불박이라는 점이 주요한 변별성이라고 생각한다. 불박이라는 점은 곧 행동의 제약을 불러온다. '기존 윤리 관념에 대한 도전'은 이들의 공통점이지만, 불박이는 자연히 그 표출 방식이 과격하지 않고 공격 대상도 무차별적이진 않다. 이는 방학중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제주에는 힘 센 여자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제주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와 女權의 표출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풍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제주에서, 여성의 비밀 누설로 인한 실패담이 거의 전하지 않는 것도 여성의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속신화를 제외하고는, 제주 여성이 진취적이라 할 예는 찾기 어렵다. 일정한 선에서 처침이 같이 공인되며 각각의 생활을 꾸려 나가는 제주의 생활 양식에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처침간의 갈등

을 말하는 예가 거의 없다. 또 제주의 경우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를 제외하면 계모의 악함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고된 시집살이에 관한 설화가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가족 생활 권역이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서사무가를 그대로 구술하는 경우(문전본풀이: 정이 없는 정소남, 남선비와 노일저대, 토산당본풀이: 자운당(이상 「集成」) 등)도 있어서, 제주는 巫儀가 성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제주 설화의 異人(名醫 진좌수, 도술을 지닌 이좌수, 고당장, 김당장 등)이나 여성에 대한 심층적 해석은 후속 작업을 기약한다.

한 가지 흥미있는 점은 '배비장전'의 무대가 제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과제로 남긴다.

## 參 考 文 獻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編, 「濟州說話集成(1)」, 198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 「韓國口碑文學大系」, 1980~1989.

翰林大學校 國文科 編, 「江原口碑文學全集(1)」, 翰林大出版部, 1989.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1981.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姜恩海, 「傳說的 삶과 죽음 以後의 세 變容」, 金烈圭 編, 「韓國文學의 두 問題-怨恨과 家系」, 學研社, 1985.

金大淑, 「韓國說話文學研究」, 集文堂, 1994.

趙東一, 「人物傳說的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韓相福 編, 「한국인과 한국 문화」, 尋雪堂, 1982.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一潮閣, 1981.

許 椿, 「韓國 神話의 系列論-競合과 互讓-」, 「白鹿語文」 9輯, 濟州大 國教

科, 1992.

——, “說話의 女性 研究(I)”, 「常山韓榮煥博士華甲紀念論文集」, 開文社, 1993.

——, “신문대 할망 說話 論考-濟州島 巨女說話의 性格-”,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 白文社, 1993.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1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5.

G. S. Kirk, *Myth-its meaning and function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